

전남대병원 김윤하 교수, 네 번째 임신부 건강지킴서 발간

‘임산부를 위한 건강이야기’

2017년 1편 시작으로 꾸준한 인기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인 전남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김윤하 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이 임신부를 위한 의학지킴서 ‘아침에 읽는 임신부를 위한 건강이야기’ 네 번째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센터장은 지난 7일 오후 전남대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에서 교수 등 의료진은 물론 치료했던 환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신부를 위한 지침서 네번째 이야기 출판기념식을 열었다.

국내 모체태아의학 분야 명의로 손꼽히는 김 센터장은 정상 임신은 물론 해마다 증가하는 고위험산모에 대한 예방, 치료, 추적 관리 등 다양하고 유익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첫 발행 이후 2019년, 2021년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한 이번 책은 ▲임신준비 및 산전관리 ▲임신 중 건강 및 약물관리 ▲기형아 검사 ▲고위험 임신 ▲분만 등 10개의 대단원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또 ▲현성 당뇨병 임신부 관리 ▲임신 중 자궁근종 ▲임신 중 난소 종양 ▲쌍둥이 임신 관리 ▲분만 후 탈모와 피부관리 등 11개 단원이 추가됐다.

특히 김 센터장이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백신 접종 필



요하다’, ‘분만 투혼’, ‘광주·전남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안전한가’ 등 26개 칼럼 및 기고문이 부록으로 실렸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용어나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마다 사진과 삽화를 실었으며, 중요한 치료 및 관리요령에 대해서는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요약 정리했다.

한편, 김윤하 센터장은 성실한 진료·연구·교육·봉사

와 활발한 학회활동을 통해 국내외 산부인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18~2020년 대한모체태아의학 회 회장을 맡으며 국내 임신부 태아 의학 연구 및 발전에 노력했고, 2019~2021년에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세계산부인과총연맹(FIGO) 안전한 모성과 신생아 건강위원회의 선출위원으로 임명돼 한국대표로서 세계표준의 임신지킴서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한국콘텐츠진흥원,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청렴과 ESG, 그리고 내부감사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6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 전문강사 자격으로 전본회 상임감사가 진행했다. 전 감사는 ESG 중 지배구조(G)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 달성을 위한 내부감사의 역할을 설명했다.

전 감사는 “위험관리, 통제와 지배구조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개선해 조직이 그 목표를

완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내부감사”라며 “이러한 지원으로 조직에 가치를 부가하는 것이 감사활동의 궁극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제 해결형 사전 컨설팅 감사의 고도화, 선제적 반복패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시대를 앞서 나가는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올해에는 청렴 체감도를 더욱 높여 종합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병무청,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붕어빵 나눔행사’



광주전남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지난 6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붕어빵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출근길 직원들에게 붕어빵과 어묵꼬치를 나누며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전남병무청 제공>

라엘음악학원, 좋은이웃학원 동참



라엘음악학원(원장 허주은)은 최근 굿네이버스 나눔 캠페인 ‘좋은이웃학원’에 가입해 헌판을 전달받았다. 학원은 향후 모잠비크 아동 1:1결연을 통해 정기후원을 진행한다. <굿네이버스 호남본부 제공>

농협 광양시지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독려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지부장 장영조)와 광양시 임직원 50여 명은 최근 광양읍 인동 로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권했다. <전남농협 제공>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 KBS1 | KBS2 | MBC | KBC/SBS |
|------|--|--|--|------------------------------------|
| 6 | 00 KBS 뉴스 광장 |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0 해 불만 아침 M&W |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
| 8 | 25 아침마당 |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
| 9 | 30 KBS 뉴스 |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 55 SBS 10 뉴스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 45 뽀빠뽀 좋아좋아 스페셜 |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
| 11 | 00 동네 한 바퀴(재) 55 한식의 마음 스페셜(재) | 00 태풍의 신부 스페셜 | 15 꾸러기 식사교실 45 시간탐험대 다이노맨 | 30 고향이 보인다 |
| 12 | 00 KBS 뉴스 12 |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 00 12 MBC 뉴스 25 폭도의 계절(재) |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법전(재) |
| 1 |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 00 영상앨범 산(재) 3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 55 2시 뉴스 외전 | 00 뉴스브리핑 |
| 2 | 00 KBS 뉴스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방과 후 초능력 | | | |
| 3 | 00 브레드와 워크의 세계여행 15 준비팀 3 30 반짝반짝 달님이 2 45 프라몬 원정대 |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실 문계공향 3(재) 30 TV 유치원 | 55 기본 좋은 날(재) | |
| 4 | 00 시사건건 | 00 누가누가 잘하나 | 55 5 MBC 뉴스 | 00 엘리가 간대(재) |
| 5 |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스페셜 | 00 알쓸달쇼 개채! 티니핑 15 꼬마공룡 크앙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 10 실화탐사대 스페셜 |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
| 6 | 00 6시 내고향 | 30 2TV 생생정보 | 05 분방을 보자 |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
| 7 |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 50 태풍의 신부 | 05 생방송 연속복권 720+ 10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테크 |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
| 8 | 30 내 눈에 콩깍지 | 30 흥감동전 스페셜 | | 30 KBC 8 뉴스 |
| 9 | 00 KBS 뉴스9 | 50 연모(재) | 00 다큐 M | 00 이상한 나라의 지옥법정 |
| 10 |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 | 00 심야괴담회 |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
| 11 | 30 KBS 뉴스라인 | 00 연중 플러스 | 20 문화콘서트 난장 | |
| 12 | 10 9층 시사극(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 05 아이 러브 스포츠 30 통합뉴스룸 ET(재) | 30 광주MBC 보드 스페셜 4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 00 내이트라인 30 신년특집 로컬콘텐츠의 미래 컨퍼런스 |

EBS1

| | | |
|----------------------|---------------------|-----------------------------|
| 05:00 왕초보 영어 | 10:10 한국의 둘레길 | 17:00 EBS 뉴스 |
| 05:30 클래스 e | 10:30 한국기행(재) |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
| 05:50 한국기행 | 10:50 최고의 요리비결 | 17:30 번개맨과 안전맨 |
| 06:10 세계테마기행 | 11:20 세계테마기행 | 18:00 생방송 워킹해결단 |
| 07:00 꼬마버스 타요 | 12:00 EBS 뉴스 12 | 19:00 정글 플래닛 |
| 07:15 하프와 친구들 | 12:10 EBS 교육진단 | 19:30 한국의 둘레길 |
|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 13:00 글로벌 아바 찾아 삼만리 |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
| 08:00 동등당 유치원 | 13:50 명의 | 20:40 세계테마기행 |
| 08:20 미니특공대 바이레인저스 | 14:45 한국의 둘레길 | (겨울왕국, 캐나다 서부 -캐나다인처럼 살아보기) |
| 08:35 한글용사 아이야 |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 21:30 한국기행 |
| 08:50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재) | 15:35 꾸러기 천사들 | <함께하니 행복해 4부 우리가 바라던 바다> |
| 09:05 최고! 호기심딱지 |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 21:50 극한직업 |
| 09:20 시뮬 | 16:15 페퍼 피그 | 22:45 공상가들 |
| 09:35 타타와 쿠마 | 16:25 한글용사 아이야(재) |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
| 09:4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 16:40 동등당 유치원(재)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9일(음 1월 19일 戊戌) ☎ 010-9790-8237

| | |
|---|--|
| <p>36년생 부족함을 채우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자. 48년생 순간적인 착오가 많은 손실을 부르지 않을까 두렵다. 60년생 주체할 수 없는 관점이 절실하다. 72년생 머지않은 장래가 될 것이니 철저히 준비하라. 84년생 정성으로써 도의를 다한다면 복 받을 것이다. 96년생 완벽을 추구하기란 사실상 힘들 것 같다. 행운의 숫자 : 14, 59</p> | <p>42년생 최소화할 수 있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리라. 54년생 초심을 잃지 말아야 진행이 가능하다. 66년생 결과적으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78년생 절대로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되는 법이다. 90년생 너무나 비속비속하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02년생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행운의 숫자 : 30, 62</p> |
| <p>37년생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가변적이다. 49년생 진정성을 보여 준다면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느니라. 61년생 생 가장 쉬운 것부터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년생 마무리 단계에서 정제할 수 있다. 85년생 원인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알자. 97년생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도량이다. 행운의 숫자 : 28, 68</p> | <p>43년생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 55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줌이 결과적으로 나를 것이다. 67년생 갑갑해 왔던 것이 곧 해결 되겠다. 79년생 현재의 판에 있어서 당해 사항 외에 굳이 여유분을 둘 필요까지는 없었다. 91년생 부족하다면 좀 보태면 되는 것이다. 03년생 뭉쳐 버릴 뻔한 사실이 드러난다. 행운의 숫자 : 08, 87</p> |
| <p>38년생 서광이 비취 오는 길목에 놓여 있다. 50년생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62년생 감성의 기운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74년생 현재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활로가 트이게 된다. 86년생 전체를 아우르면서 일일이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거의 같다. 98년생 가다듬고 살펴야 추진력을 갖게 된다. 행운의 숫자 : 31, 94</p> | <p>44년생 양자 사이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느니라. 56년생 마음을 비우고 긴 안목으로 내다보아야. 68년생 뻔한 다 예견하면서도 빠져드는 우를 범하지 말라. 80년생 명예나 재물이 스스로 따르는 흐름이다. 92년생 유동적이니 만큼 변수의 꺾기까지 감안해야겠다. 04년생 만족할 줄 아는 것도 커다란 지혜임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2, 73</p> |
| <p>39년생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51년생 신 방식을 참고하지 않는다면 오판의 소지가 다분한 판국에 위치하느니라. 63년생 허울 좋은 명분 보다는 알찬 실속을 차리는 것이 이익이다. 75년생 유지에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87년생 실제로 접하게 되는 마당이다. 99년생 이동해야 하는 입장이다. 행운의 숫자 : 07, 86</p> | <p>45년생 상호 관련된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57년생 짐작 불가한 자제한다면 불평함이 사라질 것이다. 69년생 객관적이 지 못하면 무의미하느니라. 71년생 모순 속에 갇힌 습관이 문제이다. 83년생 전후 사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만 가닥을 잡을 수 있느니라. 95년생 한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97</p> |
| <p>40년생 의견이 분분하니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52년생 다양한 측면에서 큰 폭으로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64년생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가는 공든 탑이 무너진다. 76년생 증폭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88년생 기괴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번이 예상된다. 00년생 알고도 가만히 있음이 나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63</p> | <p>34년생 모순을 인식했다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년생 예상 밖의 손실이 보이나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58년생 관계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다. 70년생 버려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82년생 언행을 무겁게 하고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 94년생 희망 사항에 부합하는 여건이 조성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41, 54</p> |
| <p>41년생 절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53년생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65년생 결과는 차치하고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야 할 때가 되었다. 77년생 상대의 마음을 읽고 처신하여야 자연스럽다. 89년생 기존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01년생 핵심을 적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행운의 숫자 : 46, 76</p> | <p>35년생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 발발하였다. 47년생 조금만 자제한다면 불평함이 사라질 것이다. 59년생 객관적이 지 못하면 무의미하느니라. 71년생 모순 속에 갇힌 습관이 문제이다. 83년생 전후 사건의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만 가닥을 잡을 수 있느니라. 95년생 한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97</p> |